

王海鸰의 结婚三部曲에 나타난 女性意识

박운석* · 김현주**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섹슈얼리티의 재인식 |
| II. 전통적 관념의 재수용과 부정 | V. 여성 주체의식의 각성 |
| III. 재편성된 성별 분업의 제시 | VI. 맺음말 |

I. 머리말

여성문학과 여성해방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입센(1828~1906)의 《인형의 집》은 5.4 시기 중국에 소개된 후 중국 사회와 여성운동에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현대 중국에 등장한王海鸰(1952~)은 여성의 운명을 묘사한 결혼삼부곡을 통해 여성의식을 반영해 내어 ‘중국 결혼소설의 대가(中国婚姻第一写手)’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结婚三部曲으로 불리는 《牵手》(1999)와 《中国式离婚》(2004)과 《新结婚时代》(2006)는 현대 중국인의 결혼과 여성의 감정을 리얼하게 파헤친 여성문학 작품으로 평가된다.

여성의식은 여성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성해방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중국 여성문학에서 여성의 주체성의 탐색은 대체로 ‘人—女人—个人’으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5.4 시기에는 여성의 입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장에서 인생의 의의를 탐색하고 돌아갈 곳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신시기 여성들의 자아인식은 남녀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탐색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또한 ‘사람’과 ‘여성’에 대한 혼란과 선택의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은 구체적이고도 천차만별이며 유일무이한 개인이며, 개인의식과 개인화 창작은 여성문학을 다원적이고도 풍부하게 한다.¹⁾

개혁개방 정책으로 종전의 개인과 사회에 미치던 국가의 영향력이 시장경제의 힘으로 대체되면서 신시기 여성들은 의식 방면의 혼란을 겪게 된다. 중국의 여성학자 李小江은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여성의 ‘주체의식’과 ‘집단의식’이 결여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잃어버린 여성의식의 부재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²⁾ 王海鸰은 이러한 중국 여성의식의 현실을 감지하고 이를 작품을 통해 리얼하게 파헤친다. 본고에서는 王海鸰의 结婚三部曲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세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여성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식은 당시의 사회문제 등과도 무관치 않으므로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대 중국의 양성평등 혹은 여성해방 상황과의 비교도 병행하고자 한다.

王海鸰의 소설에 구현된 여성의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여성의식’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식은 ‘여성’의 성적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인정하는 인지과정을 말한다.³⁾ 여성의식은 첫째, 여성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여성자아와 외부세계, 즉 남권중심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 자아 즉 여성의 내부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다.⁴⁾ 여성의식

-
- 1) 여성이 사람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주체성의 탐색은 대체적으로 ‘人(여자는 남자와 같다)—女人(여자는 남자와 다르다)—個人(독립적으로 제고된 구체적이면서도 천차만별인 개인으로서 사람과 여자로 통일시킨다)으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刘思谦, <中国女性文学的现代性>, 《文艺研究》第1期, 1998, 97-98쪽.
 - 2) 김경옥,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여성연구와 여성운동>, 《젠더와 사회》 Vol.2·3, 2004, 195쪽.
 - 3) 荒林, <世纪之交的中国女性文学>, 《文艺争论》第1期, 1997, 51쪽.
 - 4) 冉小平, <略论当代女性文学女性意识的发展——20世纪中国“女性书写”研究系列

과 성별의식은 상호치환이 가능하다. 여성의식은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 타고난 천성으로서의 자연적인 여성으로서의 의식,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의식, 사회·정치·경제생활에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식, 사회체제와 구조에서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각성하고 이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식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⁵⁾ 무엇보다도 여성의식은 여성이 사람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복합적 의식을 포함한다. 즉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간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자립적이고도 주체적인 ‘또 다른 류’의 존재라는 것이다.⁶⁾

여성의식의 핵심에는 여성의 각성, 즉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여성은 여성의 시각으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바라본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요소를 인지하고, 자아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추구하며, 이와 동시에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 인생에서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며 주체적 지위를 확립해 나간다.

여성의식은 궁극적으로 삶의 풍요로움과 완전성을 지향한다. 즉 인간 가치의 보편적 실현인데, 이 점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⁷⁾ 따라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회·문화·정치·경제의 제반 측면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특히 전통적 남녀불평등 관념, 남녀 간 성별 분업과 섹슈얼리티에 직면하여 드러나는 여성의식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각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湖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2004, 64쪽.

5) 王政, <“女性意识”、“社会性别意识”辨异>, 《妇女研究论丛》, 1997, 14-15쪽.

6) 杨冬红, 《站立起来的“夏娃”》, 《乐山师范学院学报》第4期, 2000, 61쪽.

7) 乔以钢, 《论中国女性文学的思想内涵》, 《南开学报》第4期, 2001, 33쪽.

II. 전통적 관념의 재수용과 부정

계획경제 시기,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정신적 측면에서 전통가부장제의 유산들은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⁸⁾ 이것은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남성 가부장주의 가족질서가 재확립됨에 따라 일정한 지배력을 되찾게 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생존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⁹⁾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지위가 제고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뚜렷한 발전의 궤적을 그려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편 덕에 부귀영화를 누리다.’라는 夫貴妻榮의 의존심리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다.’라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등의 남녀 불평등 관념은 쉽게 불식되지 않는다. 세 작품에는 이러한 봉건적인 관념을 재수용하거나 부정하는 여러 현대 여성들이 등장한다.

夫貴妻榮의 관념은 《牽手》의 夏曉雪, 《中國式離婚》의 林小楓과 《新結婚時代》의 顧小西의 경우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 여성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남편 덕에 호강하려는 심리가 존재한다. 《牽手》의 夏曉雪와 《中國式離婚》의 林小楓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현대 지식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기대어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전통적 관념을 재수용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보다 남편의 일을 더 중시하며, 남편이 성공하여 자신을 호강시켜 주기를 희망한다.

園林局 직원으로서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며 업무에 유능했던 夏曉雪는 결혼 후 남편의 성공과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희생한다. 그

8) 이경아, <중국 계획경제시기 가부장제의 변형>,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2006, 225쪽.

9) 김미란, 《현대 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 : 국가·젠더·문화》, 소명출판, 2009, 233쪽.

녀에게 “남자는 일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일에 성공한 남자가 있어야 한다.”¹⁰⁾는 관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념에 해당한다. 夏晓雪가 일본유학을 포기하고,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 한가한 자료실로 보직을 옮긴 것은 가정에 더욱 헌신하기 위해서이다.

《中国式离婚》의 林小枫은 교내 최연소 부장교사에, 우수교사로 인정받고 있는 지식 여성이다. 대학 시절 《인형의 집》의 노라를 연기한 적이 있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성공한 남자의 여자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나아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인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전력으로 남편을 내조하려 한다.

전통적 가부장제 관념에 침식된 여성들은 이처럼 남편을 집안의 기둥으로 여기고,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는 그리 이상적이지 못하다. 희생과 헌신의 결과 남편이 평생 자신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난다. 필연적으로 여성들은 보상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된다.

夏晓雪는 가정과 남편과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나 남편 钟瑞에게 이혼을 요구 받는다. 아내의 희생과 헌신으로 출세 길에 오른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中国式离婚》의 林小枫 역시 같은 처지가 된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남편 宋建平이 그녀를 기만하고 배신하여, 결국은 이혼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남편의 성공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夏晓雪와 林小枫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부귀영화의 꿈이 날아가 버리자 여성들은 남편들과 다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아들이 유괴되거나(夏晓雪) 자해하고 다치는(林小枫) 가족 내 불행을 겪으며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어 버린다. 가부장제 관념의 직접적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그 피해는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 구성원에게

10) 王海鸰, 《牵手》, 作家出版社, 2007, 109쪽.

미치게 된다.

이처럼 자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적 지식여성이라 할 수 있었던 夏曉雪와 林小楓의 잠재의식에는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부귀영화를 약속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남아 있었다. 그녀들은 무의식중에 남편에게 종속되는 길을 걸으며 불평등한 관계를 수용한다. 일종의 정신적 역행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전통적 여성들과 다르다. 비록 무의식중에 가부장제 관념을 수용하였지만, 원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고등교육의 수혜자로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두 여성은 모순적인 존재들이다. 가부장제적 관념과 현대적 가치관의 혼재가 그녀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新结婚时代》의 顾小西 또한 가치관의 혼재에 빠져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앞의 두 여성들이 선택한 전통적 관념의 재수용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顾小西는 출판사 편집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지식여성이다. 풍요로운 집안에서 성장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온 顾小西에게도 남편 덕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다. 남편이 회사 간부 신분으로 출판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고속승진해서 나도 호강하고 싶어. 남편이 성공하는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사표를 내고 매년 세계여행을 다닐 거야.”¹¹⁾ 그렇지만 그녀는 다른 한편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신중히 해야겠어. 안 그러면 결혼생활이 정말 위기를 맞을지도 몰라. (중략) 建国 씨를 따라 부귀영화를 누릴 꿈은 꾸지만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원칙은 지켜야 해.”¹²⁾ 顾小西도 잠재의식 속에 남편을 통한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남편에 의존하려는 심리의 위험성을 스스로 간파한 후 이를 부정한다. 그리하여 남편에 대한 의존 관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일에 열

11) 王海鸰, 《新结婚时代》, 作家出版社, 2006, 251쪽.

12) 같은 책, 260쪽.

중한다.

남아선호 사상 또한 王海鸰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모순된 심리의 한 요소이다. 21세기 현대 지식여성에게도 봉건적 남아선호 사상이 존재하며, 그녀들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中国式离婚》에서 林小枫은 肖莉 모녀를 만났을 때, 딸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된 겸손으로써, 아들을 둔 부모의 자신감과 우월감의 표현이다. 그녀는 분명 “아들이 딸보다 훨씬 낫다.”¹³⁾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结婚时代》의 顾小西에게는 아들을 낳는 일이 하나의 임무가 된다. 남편인 何建国的 고향인 농촌 何家村에서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일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何建国的 형 내외는 벌금까지 내면서 아들을 낳으려 했으나 딸만 둘 낳게 된다. 이로 인해 顾小西는 아들을 낳아야 할 중임을 부여받는다.

‘아들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집에 금은보화가 있다 해도 대가 끊기면 모두 다 헛일이지.’¹⁴⁾

‘대가 끊기는 것은 농촌에서 가장 큰 일이지.’¹⁵⁾

北京에서 출세한 둘째 아들이 6년이 넘도록 손자를 안겨주지 않자 何建国的 아버지는 걱정을 쏟아놓는다. 何建国的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므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불효이다. 며느리 顾小西도 농촌에서는 대가 끊기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며 걱정한다. 중국에서는 남존여비와 함께 효와 장유유서의 윤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법률의 儒家化’에 따라 “孝와

13) 王海鸰, 《中国式离婚》, 作家出版社, 2007, 123쪽.

14) 王海鸰, 《新结婚时代》, 5쪽.

15) 같은 책, 247쪽.

장유유서의 윤리가 남존여비를 압도하였으며”¹⁶⁾ 국가는 아직도 여전히 효를 중시하고 연장자를 우대한다.¹⁷⁾

그래서 何建国的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생활을 지배하려 하며, 결국 애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이혼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여자의 큰 임무라는 관념은 습관성 유산인 顾小西에게 그대로 수용된다. 21세기 초에도 여성은 아들을 낳는 도구로 그 지위가 정해지며, 顾小西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늘 불안해한다.

그러나 顾小西는 이 전통적 관념을 극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처음에 그녀는 많은 노력을 통해 옛 가치관과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뛰어넘을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절감하고, 또 이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혼을 요구한다. 顾小西에게 전통적 관념은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조건 회피할 수 없는 불편한 무엇이다. 결국 그녀는 가족 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부부 둘만의 가족 관념을 초월하고, 이로 인해 시아버지에게 재결합의 허락을 받고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

何建国的 고향인 何家村에는 남존여비의 관념이 강하여 여자는 사람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여자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는다. 남자에게만 땅을 분배하므로 만약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므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복종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新结婚时代》의 小夏는 집안에서 산아제한까지 어겨가며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강요하자, 아들을 낳으면 딸이 불행해질 것을 알고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여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小夏는 불평등한 봉건적 남아선호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반항함으로써 전통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16) 천성림, <실천성에서 다원화로: 한국의 중국여성사 연구의 배경과 흐름>, 《여성과 역사》 Vol.13, 2010, 229쪽.

17) 이경아, 앞의 논문, 245쪽.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농촌에는 전통적 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에 낮은 교육수준과 열악한 복지 상황 등이 겹쳐져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실 전통사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계획경제 시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촌여성은 언제나 불평등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¹⁸⁾ 남성 중심 사상이 강하게 깔려있는 농촌은 여전히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이다. 《新结婚时代》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농촌 여성의 양성평등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Ⅲ. 재편성된 성별 분업의 제시

성별 분업은 남녀의 지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王海鸰은 “남자는 바깥일에 더 치중하고 여자는 집안일에 더 치중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것”¹⁹⁾임을 주목한다. 그녀의 작품에는 성별 분업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타난다. 봉건시대의 성별 분업 구도는 男耕女织과 男主外女主内란 용어에 잘 나타나 있다. 남성은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성은 가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념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차단하여 그 활동 범위를 사적 공간으로 제한해 버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성별 분업은 그런 의미에서 남녀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중국 全国妇联의 평가보고서는 ‘재생산 노동이 성불평등의 근원’²⁰⁾이라고 지적하였다. 양성평등을 지향해 온

18) 계획경제시기 도시여성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일자리를 배분받았지만 농촌여성의 경우는 도시여성이 누리게 되는 여러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낮은 효율의 농업생산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봉건적 관습이 강하여 잔존하던 농촌에서 남녀평등의 의식과 제도적 보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경옥, 앞의 논문, 183쪽.

19) 刘雪明, <王海鸰: 我的作品不负责做梦, 只负责提醒>, 《中国作家网》, 2014. 3.31.

20) 이영자, 《현대 중국의 여성 젠더를 말하다》, 한국학술정보(주), 2009, 295-

UN은 남녀 간의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전통적 성 역할 분담 때문이라고 인식한다.²¹⁾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牽手》의 夏曉雪는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직장에서는 남성들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차별화되고 많은 여성들이 해고되는 일이 일어난다.²²⁾ 이로 인해 1930년대에 있었던 ‘부녀자들의 가정 회귀(婦女回家)’ 현상이 1990년대 말 夏曉雪에게 재현된다. 결혼 후 자기계발 없이 집안일에 전념해 온 夏曉雪는 더 이상 전문직원이 아니다.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습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없는 직원으로 평가되어 감원 대상이 되고, 결국 해고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처럼 신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통적 성별분업인 가사노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夏曉雪의 경우처럼 여성의 해고문제는 국가가 양성평등에 대한 계획경제 이념의 실천을 포기한 데서 비롯된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을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여성은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자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한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 夏曉雪의 동료인 周艷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녀는 급여가 쌀값 수준인 60위안으로 떨어지는 열악한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사귀던 남자를 버리고, 나이는 많지만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서 돈이 많으면 없던 정도 술술 생긴다며 만족해한다. 이는 실직의 위험

296쪽.

21) 이영자, <중국 시장경제와 성별 분업>, 《여성논총》 제5집, 2002, 204쪽.

22) 개혁개방 후 1990년대에는 계획경제 시기 여성의 보호막이었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효율성이 중시되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下崗 노동자와 실업자가 매년 증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인 《女职工劳动保护规定》(1988)은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여성의 실직과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에 노출된 신시기 여성이 남자의 경제력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中国式离婚》의 林小枫은 계획경제 시기 양성평등 정책으로 부여받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개혁개방 이후 재편성된 남성중심의 성별 분업으로 돌아간다. 남편 宋建平은 직장을 옮긴 후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다. 승진가도를 달리는 그는 아내가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지식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자 아내를 무시하고 냉대하며 이혼을 계획한다. 林小枫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고 큰 희생을 치르며 마침내 중산층 전업주부 대열에 합류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결혼을 모두 잃게 된다.

林小枫처럼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男耕女织의 종속적 관계로 돌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많다. 이는 경제적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현대 지식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며, 여성의 매력을 상실하는 일이기도 하다. 요컨대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안정적인 수입과 양성평등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며, 결혼이 파국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독립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여성의 힘이 자존심의 근원이 된다.

이처럼 夏晓雪와 林小枫의 예를 통해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이 경제적 독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와 鲁迅 등 많은 지식인들이 여성 해방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일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²³⁾

23) 보부아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거리를 대폭 좁힌 것은 노동이며, 노동만이 여자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자가 받는 사회적 압박은 경제적 압박의 결과라고 하였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 이희영 역, 《제2의 성》, 동서문화사, 2009, 874쪽. 엥겔스는 가족 내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는데 남성의 지배는 자연조건이 아니라 경제조건에 의한 것으로 계급(즉,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의 제거만이 사랑에 기초한 평등한 결혼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엥겔스가 생각하는 여성해방의 조건은 여

특히 여성의 운명에 주목한 魯迅은 여성의 독립과 경제력의 상관관계에도 관심을 가졌다. 《伤逝》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던 신여성 子君은 涓生과 동거 후 경제적 의존자가 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책을 볼 틈도 없어 결국 현대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상실하게 된다.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涓生の 한 마디 말에 子君은 모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진다. 경제력이 없는 여성에게는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가 어려우며, 결국 그 삶이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5.4 시기 신여성은 가정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상은 신중국이 수립된 후 국가의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여성에게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면서 어느 정도 실현되는 듯했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이 상황이 일변한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가부장제의 남성위주의 성별 분업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夏晓雪와 林小枫 등은 사회로 나가서 일하다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회귀하는 신시기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성이 가사노동에 전적으로 투신할 경우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夏晓雪의 경우와 같이 해고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夏晓雪와 林小枫의 ‘가정으로의 회귀’에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영향이 발견된다.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아이와 남편과 부모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의 보살핌과 뒷바라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林小枫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그 분명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아 경제적 공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여성은

성의 경제력 확보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있다.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학: 행복한 시작》, 신정, 2014, 45쪽. 노라 열풍이 중국을 휩쓸며 많은 여성들의 가출 사건이 벌어지자 魯迅은 1923년 北京女子高等师范学校 연설에서 중국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며 노라처럼 무작정 집을 나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불평등한 성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부장제의 모습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념은 여성 자신에게 내재화되기도 한다. 铁凝의 《没有纽扣的红衬衫》의 딸들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엄마의 가사노동을 당연한 책임이라 인식한다. 张辛欣의 《在同一地平线上》에서는 남녀가 모두 자신의 일이 있어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남성을 위해 자신의 일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성차별이 심해지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李小江은 그것이 여성의 생물학적인 기능, 즉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⁴⁾ 근대 가부장제 관념은 남녀 간의 성역할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특히 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려 하였다.²⁵⁾

이러한 가부장제 관념은 여성에게 무의식중에 수용된다. 《牵手》의 夏晓雪는 실직과 이혼으로 생활이 궁핍할 때에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예금을 해약하지 않는다. 《中国式离婚》의 林小枫 역시 마찬가지로 부유한 삶을 동경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들의 교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에서는 공평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개인적 희생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新结婚时代》의 顾小西는 유산 징후로 휴직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거의 확실했던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 성취에 장애로 작용한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념 역시 모성만을 강조하며 남녀 간의 역할에 차등을 두고 있다. 《牵手》의 夏晓雪가 이혼할 때 5살 된 아이에게는 어머

24) 김미란, 위의 책, 117-118쪽. 중국에서는 출산과 육아 휴가를 여자에게만 국한시키고, 모성보호를 여성에 대한 보호로 규정했다. 이영자, 위의 논문, 204쪽.

25) 천성림, 위의 논문, 229쪽.

니의 손길이 필요하므로 夏晓雪가 부양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中国式离婚》의 宋建平 역시 이혼하면 아들은 엄마와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요컨대 夏晓雪와 林小枫을 포함한 王海鸰 소설의 여성들은 이혼 후에도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념의 지배하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모성신화는 거짓이라는 연구발표가 있었다.²⁶⁾ 그러나 소설 속 여성들에게는 ‘돌봄’과 ‘보살핌’을 지향하는 모성이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많은 문학작품에서도 모성을 본능으로 인식하며 ‘돌봄과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모성을 미화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여성성 회복과 함께 가정회복을 위해 모성을 도구적으로 강조하는 서사방식이 출현하였다. 1990년 방영된 《渴望》은 희생적인 여성·어머니상을 유포한 드라마로, 중국 전국부녀연합회에서는 이 드라마가 중국의 여성해방을 15년이나 후퇴시켰다고 지적하였다.²⁷⁾ 그러나 모성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최근에 출현한 제3세대 페미니즘에서는 ‘수용’과 ‘보살핌’이라는 여성의 도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또 한편으로는 王海鸰의 여성들처럼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中国式离婚》에서 肖莉는 이혼 후 딸을 부양하면서도 여성의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딸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서 자신의 생존과 딸의 자부심을 위해 승급심사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각별한 노력

26) 최근 미국의 10개 대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모성신화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위의 책, 144쪽.

27) 戴锦华, 《犹在镜中》, 知识出版社, 1999, 235쪽. 김미란, 위의 책, 202쪽에 재인용.

28) 근자의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제3세대는 1세대의 ‘남성중심적 페미니즘’과 2세대의 ‘인간주의적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여성성’의 정의가 ‘희생 논리’를 기반으로 있다는 것이다. ‘여성성’에 대한 정의는 재고되어야 하며, 모성과 육아에서 비롯되는 보살핌이라는 여성의 도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경, 《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변이와 증식 과정》, 《어문학》 Vol.121, 2013, 275-276쪽.

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그녀는 경쟁에서 승리하여 교수급 전문의로 되고, 나중에는 부주임으로까지 승진하게 된다. 肖莉는 딸에게는 엄마밖에 없으므로 딸을 위해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한다. 肖莉의 새로운 성역할은 전통적 성별 분업에서 벗어난 편모 가장이 지녀야 할 여성의식과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 성별 분업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新结婚时代》의 何建国은 남성이지만 가사노동을 대부분 분담하며 처갓집에 가면 혼자서 요리를 도맡아 한다. 顾小西의 아버지는 가사노동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직접 시도하기도 한다. 《新结婚时代》의 경우는 도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가정 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히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율도 점점 높아져서 성별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新结婚时代》에 묘사된 농촌의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분업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와 억압받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계획경제 시기의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²⁹⁾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한정하는 관념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兩會 기간에 全国政协委员인 張曉敏은 “국가는 조건이 되는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해야 한다.”³⁰⁾고 제안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의 성별 분업 관념은 사람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있고, 사회적 제도로 고착화되어 있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이는 보다 지속적인 개인적·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29) 이영자, 위의 논문, 208쪽.

30) 翟立丹, <论先进性别文化在转型期社会中的境遇与出路——以“让妇女回家”为例>, 《邢台学院学报》 第3期, 2012, 22쪽.

IV. 섹슈얼리티³¹⁾의 재인식

성(性)은 남녀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한 사람의 성은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²⁾는 말은 거의 학문적으로 공인되는 일이기도 하다. 즉 성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여성의 성욕 표현은 여성의식의 중요한 표지이다. 봉건시대에 성욕의 표현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여성에게 성은 단지 출산의 수단이며 남성의 성적 대상이었다. 5.4 시기鲁迅은 여성의 성욕을 긍정했고, 1920년대 여성 작가들은 도구화된 여성의 성을 거부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자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³³⁾. 그러나 계획경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성욕은 다시 금기의 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여성의 성적인 욕구가 직접적인 긍정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프로이트의 성심리학 이론이 재수용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³⁴⁾

王海鸰은 계획경제 이후 중국 여성은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여성이 어떻게

31)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들을 의미한다. 즉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위의 책, 160쪽.

32)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성충동이 성격을 형성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설리번(H.S.Sullivan)은 인간관계가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성적 행동은 한 인간의 성격 구조에서 나온 결과라고 했다. 이들의 말은 성적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에리히 프롬 저, 이은자 역, 《여성과 남성은 왜 서로 투쟁하는가 : 사랑, 성애, 모권사회를 중심으로》, 부북스, 2009, 181-185쪽.

33) 최은정,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젠더와 문화》 제2권 2호, 2009, 8쪽.

34) 김미란, 위의 책, 158-159쪽.

여성이 되는지도 모르고 남자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⁵⁾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남녀의 갈등은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회에서 남녀를 평가하는 기준인 男才女貌 관념, 사랑과 성욕에 대한 남녀의 이해의 차이가 그것이다.

신시기 여성의 자아인식은 ‘사람 되기’와 ‘여자 되기’의 선택과 관련되어 출발한다. 신시기 여성들은 계획경제하에서 부정되었던 여성미를 추구하게 된다. 여성들은 화장하고 치마를 입으며 여성미를 가꾸기 시작한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刘思谦은 “‘사람 되기’와 ‘여자 되기’는 같이 병행될 수 없으며,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다.”³⁶⁾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기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전통적 여성상과 섹시함으로 포장하고 가꾸기 시작하며, 이것은 현대 여성의 이미지로 규정되어 널리 유포되기까지 한다. 이것은 남성의 기준에 맞추는 ‘여자 되기’이기 때문에 여성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퇴보이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자로 돌아가서 다시 성적 노리개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男才女貌 관념이 다시 수용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실 과거 계획경제 시기 국가의 보호하에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은 거의 실현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심화와 소비시대의 도래로 여성의 성 역시 상품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의 성 상품화가 만연되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점점 자신의 외모를 능력으로 삼고 외모를 팔게 된다. 성이 상품화되어 새로운 남녀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적 능력과 상품으로서의 성적 매력 사이에서 저울질 당한다.

35) <王海鸰: 缺少性别教育 当代女性要重新定位自己>, 《中国青年报》, 2004.9.27.

36) 刘思谦, 앞의 논문, 98-99쪽.

《牽手》의 王春은 미모 때문에 회사에 들어간다. 원래 사장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를 뽑을 예정이었으나 눈과 마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이유에서 王春을 채용한다. 그녀가 정치학 전공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新結婚時代》에서 출판사 주임은 외모로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결심한다. ‘美色 경제’³⁷⁾ 시대에는 미모가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자의 가치는 사회적 성공의 정도로 평가되며, 성공한 남자에게 여자는 외모를 무기로 달라붙는 상황이 전개된다. 《新結婚時代》의 顧小西는 상처한 劉凱瑞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성공한 독신이 되셨으니 달라붙는 여자들이 밀어내고 밀어내도 안 가고 끝도 없죠?”³⁸⁾ 그러나 劉凱瑞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었다고 고백한다.

여성의 외모, 남성의 사회적 성공이 인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중년 여자는 두부 찌꺼기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中國式離婚》의 변호사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중년 남자는 활짝 핀 꽃이며 중년 여자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豆腐渣)”³⁹⁾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부부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중년 여성은 쉽게 결혼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宋建平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아 나날이 더 멋있어지는 반면, 중년의 林小楓은 시든 꽃처럼 미모가 갈수록 시들어가고 주름이 늘어 매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新結婚時代》의 顧小航이 서른이 넘은 누나 顧小西를 두부 찌꺼기라고 놀리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작가 陳藍은 “20대 젊은이든 80대 노인이든 모든 남자는 스무 살 여자를 좋아한다.”⁴⁰⁾고 말한다. 젊고 아름다워야 여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능력(남자)과 외모(여자)로 기준을 달리하여 남녀를 평가하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불

37) 王海鸰, 《新結婚時代》, 180쪽.

38) 王海鸰, 《新結婚時代》, 276쪽.

39) 王海鸰, 《中國式離婚》, 245쪽.

40) 王海鸰, 《新結婚時代》, 148쪽.

평등을 야기한다. 중년에 이른 여자는 혼인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중년의 夏晓雪와 林小枫과 顾小西는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다. 夏晓雪와 林小枫은 부부관계를 시도해 보지만 실패하고 만다.

《牵手》의 钟瑞는 나이 든 아내 夏晓雪에게 싫증을 느끼고, 젊고 아름다운 王春과 사랑에 빠지게 되자 夏晓雪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중년의 여자는 옛것이 되어 새것에 도태당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夏晓雪는 이혼을 막기 위해 애를 쓴다.

《中国式离婚》의 娟子是 성관계가 사랑의 형식이라고 믿는 데 비해 刘东北는 성관계가 육체적 본능이라고 믿는다. 娟子是 부부관계 시 여자도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여자나 남자나 욕망이 모두 같다고 본다. 그리하여 성관계에서도 주동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를 통해 남녀를 평등하게 보고자 하는 신시기 젊은 여성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刘东北는 자신의 외도를 배반이론으로 변명한다. 몸의 배반, 마음의 배반, 그리고 몸과 마음의 배반이라는 세 가지 배반 중에서 마음의 배반이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하룻밤의 육체적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성욕은 별개라고 강변한다. 이러한 강변은 여성들에게 수용되기까지 하는데, 林小枫은 여자들은 마음의 배반을 훨씬 더 심한 배반으로 여긴다고 보면서 刘东北의 의견을 인정한다. 그러나 娟子是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娟子是 刘东北가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곧바로 낙태하고 이혼을 제기한다. 본능으로서의 성욕을 추구하는 刘东北의 쾌락주의와 무책임한 행동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좁힐 수 없는 남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혼한다.

《中国式离婚》의 宋建平은 林小枫에게 애정이 식어버리자 그녀를 싫어하고 기만하고 냉대하며, 자신이 발기장애(ED)라며 잠자리를 거부한다. 심지어 아내의 사이버 외도를 유도하며, 이혼을 목적으로 3년간의 西藏 근무를 자원한다. 宋建平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肖莉를 좋아하며, 刘东北 결혼식 때 사람

들 앞에서 肖莉를 안고 볼에 입 맞추며 자신의 부인으로 소개하기까지 한다.

肖莉는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다. 그녀는 성의식에 있어서 주도적이다. 肖莉는 마음에 두고 있는 宋建平을 호텔로 데리고 갈 정도로 주도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동적으로 실현하려 하는데, 이것은 刘东北의 성적 방종과는 다른 것이다. 성적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며 성에 대한 도덕적 금기에서도 자유로운 肖莉를 통해 작가는 새로운 여성 섹슈얼리티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이해된다.

《新结婚时代》의 성공한 사업가 刘凯瑞는 简佳에게 집과 차와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6년간 성관계를 유지하며 简佳에게 결혼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 简佳는 刘凯瑞에게 자신이 성적 욕망의 대상일 뿐이었음을 자각하고,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성적 노리개로 살았던 二奶의 생활을 청산한다. 도덕적 금기에서 자유로운 简佳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顾小航에게 당당히 말한다. 简佳에게는 가부장제 성문화가 강요하는 여자의 순결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顾小航의 어머니 또한 진보된 성의식을 보여준다. 顾小航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21세기야. 반드시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적거나 정조를 지키는 열녀여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순 없어.”⁴¹⁾

刘东北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생물학이 전공인 여자는 사랑과 성욕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로 인해 수많은 남녀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는 사랑과 성욕을 따로 분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 90%의 여자에게는 사랑과 성욕이 일치하며,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⁴²⁾

41) 王海鸰, 《新结婚时代》, 154쪽.

42) 王海鸰, 《中国式离婚》, 232쪽.

작가는 이러한 생물학적 관점에 의해 남성의 성적 충동을 바라본다. 나아가 “부부간의 성생활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성욕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여자들은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가져선 안 된다고 여긴다.”⁴³⁾고 본다. 작가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로 인한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배반은 참고 용서해 줘야 한다.”⁴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林小枫의 어머니는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용서함으로써 결혼생활을 무사히 지켜낸다. 夏晓雪는 남편의 배반을 용서하며, 이로 인해 남편과의 재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작가는 용서할 수 있는 배반은 용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의 차이를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 차이는 극복이 어렵고 어찌면 영원히 해결이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작가의 인식은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남녀 간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조성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사회적 분석으로 시선을 돌려 남녀 간의 차이를 해소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⁴⁵⁾ 이것을 생물학적 차이로 모두 치환해서는 안 된다.

상품 소비시대에 여성의 성 상품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성적 불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와 상업문화가 결합된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을 표방한다. 그러나 기혼여성,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43) 같은 책, 9쪽.

44) <王海鸰: 缺少性别教育 当代女性要重新定位自己>, 2004.9.27.

45)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생물학적 차이가 심리적 차이를 유발한다고 본다. 페미니즘 심리학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생물학적 몸의 차이에 강조점을 둘 경우 차이는 극복이 어렵고 앞으로도 지속될 어떤 차이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사회적 몸의 차이에 강조점을 둘 경우는 차이를 산출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고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위의 책, 65쪽, 76쪽.

젊을 때는 아름답고 성적 매력도 인정받았으나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쳐 중년에 이르자 성적 매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심한 경우 중년 여성은 성생활이 없는 無性적 삶을 살게 된다. 한편 성관계에 있어서 주동적이며, 순결이데올로기에 지배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도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새로운 여성의 출현에 대한 작가의 눈뜸이라 할 수도 있다.

V. 여성 주체의식의 각성

진정한 여성해방과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자아의 각성과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자아의 각성이 없다면 해방도 없다. 《牽手》의 夏曉雪와 《中國式離婚》의 林小楓은 양성평등의 지위를 헌납하고 남성에게 종속되는 삶으로 회귀하였는데, 자아의 각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애초 노라가 사회·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처지와 남편의 위선에 반항해 집을 나갈 때 자각은 있었으나 경제적 능력은 없었다. 이에 비해 夏曉雪는 결혼생활이 위기를 맞았을 때 경제력은 있었으나 자각이 없었고, 林小楓은 자각과 경제력이 모두 없었다. 그래서 夏曉雪와 林小楓은 껍질뿐인 결혼을 지키려고 남편에게 매달린다. 이에 비해 《新結婚時代》의 小夏는 노라처럼 자각은 있었으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여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각이라는 두 조건을 갖춘 《中國式離婚》의 肖莉와 娟子, 그리고 《新結婚時代》의 顧小西는 남편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혼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녀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목표이거나 마지막 귀착점이 되지 않는다.

夏曉雪와 林小楓의 삶은 불행하다. 그녀들의 삶에는 남편과 아들만 있고 자신은 없는, 타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이 평등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夏晓雪와 林小枫은 정신적 자각이나 경제적 자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사회적으로 자기 발전에 힘쓰지 않아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에 중년이 되어 가면서 젊었을 때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조건의 변화로 인해 남녀평등의 가능성은 점점 약화된다.

핵심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각에 있다. 이혼과 실직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夏晓雪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 지위도 되찾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녀는 지식여성의 매력을 되찾음으로써 钟瑞의 사랑도 되찾는다.

林小枫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한다.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자 결혼실패의 원인을 인식한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여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작가는 林小枫의 경우를 통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등한 지위에 있던 한 여성이 전업주부로 자처하고 난 후 어떻게 자아를 상실해 가는지를 묘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肖莉는 林小枫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실패자이지만 그 행동은 판이하게 다르다. 肖莉는 문제를 인식하고 심사숙고한 후 이혼하며 전보다 더 강인해진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함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컨대 승급심사에서 자신의 빼어난 미모로 경쟁자 宋建平에게 논문 수정을 부탁하고 경쟁심을 완화시키는 한편 평가위원들의 호감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이기며, 나중에는 부주임으로까지 승진한다. 남권주의 사회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자신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肖莉에게서 나타난다. 肖莉의 승진에서 유리천장이 깨져가는 현대 중국을 느낄 수 있다. 肖莉는 남 못지않은 모성을 지녔지만 전통적인 현모양처가 아니며 그렇다고 계획경제 시기의 女强人도 아니다. 肖莉는 주체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추구하는 여성이다.

顾小西와 娟子是 자아가 강한 여성이다. 顾小西는 결혼생활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잃지 않으며, 직장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도시여성이다. 그러

나 자기주장이 강하여 전통적 관념과 자주 충돌한다. 처음에 그녀는 애정 지상주의자였으나 여러 풍파를 겪은 뒤 돈으로 교환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게 된다. 요컨대 그녀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물질을 숭상하는 상업주의 시대의 여성이다. 그러나 이혼 후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이를 통해 何建国과 재결합을 하게 되고 행복을 되찾게 된다.

자아의식이 강한 娟子는 색시하고 여성스러우며 정의식도 깨어있는 여성이며, 남편의 외도를 보고 바로 낙태한 후 이혼해 버린다.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무책임과 불성실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娟子의 상황을 통해 뚜렷한 자아의식을 갖추고 있는 신시기 젊은 여성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牽手》의 王春은 성공한 유부남인 钟瑞를 사랑한다. 사장의 비서였던 王春은 사장이 钟瑞를 매도하자 钟瑞의 결백을 밝히려다 해고되고 만다. 유부남인 钟瑞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성관계도 가지지만 사랑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며, 결국 도덕성이 욕망을 이기게 되어 王春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주체적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배려심과 여성미를 갖춘 王春은 내면적 매력을 갖춘 여성이다.

《新结婚时代》의 简佳는 6년 동안 관계를 가져 온 刘凯瑞가 자신과 결혼할 뜻이 없음을 알고 그와의 성적 관계와 의존 관계를 청산한다.

“나는 촛불처럼 희생할 줄만 알고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반대로 남자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기만 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 小航, 사랑이란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아야 해.”⁴⁶⁾

简佳는 사랑은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랑에는 반대한다. 그녀의 태도에서 여성의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반대하는 작가의 여성의식을 읽을 수 있다. 简佳는 독립적이며 세심하고 남을 잘 배려해 주며 여성미에 지적 매력까지 갖춘 여성

46) 王海鸰, 《新结婚时代》, 158쪽.

이지만 결혼을 종착지로 여긴다. 결국 简佳는 顾小航과의 결혼 약속으로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게 된다.

小夏는 21세기 농촌의 불평등한 현실을 인식하고 과감히 반항하며, 반항은 바로 이혼으로 귀결된다. 그녀는 이혼 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 문제는 顾 교수와의 재혼 약속으로 해결된다. 21세기 小夏에게는 5.4시기 노라들과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5.4시기 여성들처럼 ‘사람으로서의 각성’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는 것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전개에 의하면 小夏는 그것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물 중에서 肖莉의 여성형상은 특별히 중요한데, 그녀의 형상은 어느 정도 작가의 삶과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작가 王海鸰은 일찍 이혼하여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여성 개인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회적 역할 등에서 전반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작가의 형상이 肖莉의 형상에 투영되어 있다. 요컨대 정신적·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주체적 존재로서 사회에서 남성들과 경쟁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별 역할과 새로운 섹슈얼리티를 제시하는 肖莉는 작가가 ‘결혼삼부곡’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王海鸰의 노라들은 곤혹에서 성숙에 이르는 여성의식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하며,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한국에서 중국 현대소설의 여성의식 연구는 주로 1920~1930년대와 20세기 후반에, 그리고 일부 작가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친 王海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고찰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 중국의 여성 혹은 여성의식은 그 발전을 저해하는 다중의 장애요소를 만나고 있다. 그 중 주된 것은 전통적 남녀 불평등 관념과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상업문화의 시각이다.

개혁개방 후 전통적 가부장제의 관념이 재현된다. 일부 여성들은 이를 수용하고 가정으로 회귀하여 남성에게 의존하려고 하며, 일부 여성들은 뿌리 깊은 전통적 관념의 폐해를 자각하고 이를 부정하며, 심지어 초월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인 농촌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여성들은 전통적 성별 분업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직장일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가정으로 회귀하거나 직장에 남거나 간에 여성들은 각종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해고의 위협과 낮은 임금 등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특히 상업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男才女貌의 전통적 관념이 가세한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은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王海鸰의 여성형상들은 억압과 초월의 어느 한 지점에서 모순과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표한다. 일부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점점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금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르는 새로운 여성 섹슈얼리티의 형성도 발견된다. 남녀 역할을 모두 분담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은 편부모 가정이 나아갈 지향점이자 대안으로 보인다.

王海鸰의 여성들은 남권 중심의 전통문화에서 불평등 요소를 자각하고 반항하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매력을 추구하며, 남권사회에서 남성과 경쟁하며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결혼삼부곡의 여성의식은 신시기의 여성의식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작가는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여성문제를 담론화하면서 여성의식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내었다. 작가의 여성의식은 곤혹에서 성

숙으로의 발전궤적을 그리고 있다.

<References>

1. Simone de Beauvoir, trans. Lee, Hee-young. *Le Deuxieme sexe*. Seoul : Dongseo Munhuasa, 2009.
2. Busan Women social Education Institute. *Women's Studies : A Happy Beginning*. Busan : Sinjung, 2014.
3. Choi, Eun-jeong. A Study on Sexuality in Chinese Female Novels in the 1980s with a Focus on Zhan-Jie, Wanga-AnYi, and Tie-Ning. *Gender & Culture*, Vol.2 No.2, 2009.
4. Chun, Sung-lim. From Practise to Diversity: A Background and Flow on a Review on Chinese Women's History in Korea in the Last 20 years. *Women and History*, Vol.13, 2010.
5. Di, Li-dan. On a Situation and Outlet of the Advanced Sex Culture in a Society of the Transformation Period – Taking “Let the Woman Go Home” as an Example. Xingtai University, 2012-3, 2012.
6. Erich Fromm. trans. Lee, Eun-ja. *Liebe, Sexualitat und Matriarchat: Beitrage zur Geschlechterfrage*. Seoul : Bubooks, 2009.
7. Huang, Lin. The Chinese Female Litera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Literary and Art Debates*, No.1, 1997.
8. Kim, Kyoung-ok. A Women Study and a Feminist Movement in China During the Chinese Economic Reform. *Gender and Society*, Vol.2·3, 2004.
9. Kim, Mi-ran. *Looking for the Lives of Modern Chinese Women : Nation·Gender·Culture*. Seoul : Somyong Press, 2009.

10. Lee, Kyung-ah. The Modification of the Patriarchal System in Chinese Society During the Planned-Economy Era,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10 No.3, 2006.
11. Lee, Yeong-ja. *Talking of (Modern Chinese) Women's Gender*. Paju :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Ltd, 2009.
12. Lee, Yeong-ja. The market economy in China and Gender role. *Korea Women's Collection of Treatises*, Vol.5, 2002.
13. Liu, Si-qian.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Female Literature. *Literature & Art Studies*, No.1, 1998.
14. Liu, Xue-ming. Wang Hai-ling : My Work is not Responsible for dreaming, Only for Reminding. *Chinese Writers Association*, 2014. 3.31.
15. Park, Sun-kyoung. Modification & Proliferation Process of 'Feminity' on Feminism Theory and Literature Works-Focus on Ee-hyun, Jung's Work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121, 2013.
16. Qiao, Yi-gang. Chinese Female Literature: Its Ideological Attributes. *Nankai Journal*, No.4, 2001.
17. Ran, Xiao-ping. Development of Modern Women Literature and Women's Consciousness. Hubei Institute for Nationalities, Vol.22, No.4, 2004.
18. Wang, Hai-ling. *Chinese-style Divorce*. Beijing : China Writers Publishing House, 2007.
19. Wang, Hai-Ling. *Hand*. Beijing : China Writers Publishing House, 2007.
20. Wang, Hai-ling. *New Era of Marriage*. (Beijing : China Writers Publishing House), 2006.
21. Wang, Hai-ling: Lack of Sex Education for the Contemporary

Women to be Independent Themselves, *China Youth Daily*,
2004.9.27.

22. Wang, Zheng. A Differentiation of “Female Consciousness” and
“Gender Consciousness”. *Collectjon of Women’s Studies*, 1997.
23. Yang, Dong-dong. Stand up “Eve”. Leshan Normal University,
No.4, 2000.

<참고문헌>

1.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 이희영 역, 《제2의 성》, 동서문화사, 2009.
2.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학 : 행복한 시작》, 신정, 2014.
3. 최은정,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젠더와 문
화》 제2권 2호, 2009.
4. 천성림, <실천성에서 다원화로: 한국의 중국여성사 연구의 배경과 호
름>, 《여성과 역사》 Vol.13, 2010.
5. 翟立丹, <论先进性别文化在转型期社会中的境遇与出路——以“让妇女回
家”为例>, 《邢台学院学报》 第3期, 2012.
6. 에리히 프롬 저, 이은자 역, 《여성과 남성은 왜 서로 투쟁하는가 : 사
랑, 성애, 모권사회를 중심으로》, 부북스, 2009.
7. 荒林, <世纪之交的中国女性文学>, 《文艺争论》 第1期, 1997.
8. 김경옥,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여성연구와 여성운동>, 《젠더와 사회》
Vol.2·3, 2004.
9. 김미란, 《현대 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 : 국가·젠더·문화》, 소명출판,
2009.
10. 이경아, <중국 계획경제시기 가부장제의 변형>, 《국제지역연구》 Vol.
10 No.3, 2006.
11. 이영자, 《(현대 중국의) 여성 젠더를 말하다》, 한국학술정보(주), 2009.

12. 이영자, <중국 시장경제와 성별 분업>, 《여성논총》 vol.5, 2002.
13. 刘思谦, <中国女性文学的现代性>, 《文艺研究》 第1期, 1998.
14. 刘雪明, <王海鸰: 我的作品不负责做梦, 只负责提醒>, 《中国作家网》, 2014.3.31.
15. 박선경, 《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변이와 증식 과정》, 《어문학》 Vol.121, 2013.
16. 乔以钢, 《论中国女性文学的思想内涵》, 《南开学报》 第4期, 2001.
17. 冉小平, <略论当代女性文学女性意识的发展——20世纪中国“女性书写”研究系列(5)>, 《湖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2卷第4期, 2004.
18. 王海鸰, 《中国式离婚》, 作家出版社, 2007.
19. 王海鸰, 《牵手》, 作家出版社, 2007.
20. 王海鸰, 《新结婚时代》, 作家出版社, 2006.
21. <王海鸰: 缺少性别教育 当代女性要重新定位自己>, 《中国青年报》, 2004.9.27.
22. 王政, <“女性意识”、“社会性别意识”辨异>, 《妇女研究论丛》, 1997.
23. 杨冬红, 《站立起来的“夏娃”》, 《乐山师范学院学报》 第4期, 2000.

<Abstract>

A study of Female Consciousness of Chinese modern novels in Korea is mainly weighed on works and writers of the 1920~1930's and the late 20th century, and on some writers. This study is intended to broaden its limits of understanding by studying Wang, Hai-ling(王海鸰)'s novel in the end of 20 century over the early of 21 century.

After the Chinese economic reform, the traditional concept of a patriarchal family system came alive. Some women accepted this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husbands, others awakened to a deep-rooted harmful effect and transcended it after denying it.

Women suffer from not only jobs but housekeeping labor. They face various unequal situations whether returning to their families or remaining in their work places. Especially following the market economy principle, they are in an unfavorable condition such as risked dismissal and low wages. And traditional concept of “Nan Cai Nü Mao(男才女貌)” which judges women by appearance is adding to its voice. As a result, a married woman gets involved in a serious unequal situation.

Wang, Hai-ling's images of women represent the women facing the contradiction in a zone of suppression and transcendence. Some women increasingly try to secure a sexual identity in the sexual relations. In process of this, escaping from a moral taboo, a new form of female sexuality following its free will is founded.

Wang, Hai-ling's women tried to seek self-realization, awakening to inequality factor in the traditional masculism culture and defying this, independently nailing down a problem, getting forward from dependence to self-reliance, affirming their value and pursuing their sex appeal, competing against men, building up a sense of sovereignty.

Key Words : 여성 의식(Female Consciousness), 성별 분업(Gender role), 섹슈얼리티(Sexuality), 신시기(the New Period), 王海鸰 (Wang Hai-ling), 결혼삼부곡(Three stories about marriage)

